

서 평

Hoang Anh Tuan. *Silk for Silver: Dutch-Vietnamese Relations, 1637-1700*.
Leiden, Netherlands: Brill, 2007.

최 병 욱*

나는 베트남의 소장 학자 호앙 아인 뚜언(Hoang Anh Tuan)의 이 책을 받아들이고 안소니 리드가 쓴 불후의 역작 『동남아시아 교역의 시대(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교역의 시대’는 동남아시아 17세기를 능동적 역사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정묘호란으로 이어지는 피폐한 조선, 도꾸가와 시대 개막과 더불어 일본의 쇄국, 명의 쇠퇴 등등으로 상징되는 17세기 동북아시아의 ‘조락’이 조락이 아닌 것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역사 인식의 큰 틀을 새롭게 잡아 놓은 안소니 리드의 성과는 개별국 연구에서의 믿을 만한 전문가 및 전문서 출현을 촉구해 왔다. 호앙 아인 뚜언의 *Silk for Silver*는 (이 책은 2006년에 완성된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하고 있다) ‘교역의 시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흥미로운 사례들을 실증적 사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이제 70을 바라보는 안소니 리드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게 만들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17세기 중반 북베트남을 연구 대상 공간으로 다루고 있다. 북베트남(전 Trinh 鄭 씨 정권 치하)은 베트남 역사책에서 ‘어두운

* 인하대 사학과

방' 같은 곳이다. 베트남에 남아 있는 관찬 사료도 있고, 윌리엄 담피에르 같은 여행자들이 남긴 기록도 있지만 역사학에서는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얘기이다. 베트남의 역사는 15세기 명나라로부터의 독립투쟁, 타인 쩡(Thanh Tong 聖宗 1460-1497)의 화려한 치세, 16세기 막(Mac) 씨의 찬탈 및 부흥 운동, 그리고 남북의 분립까지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몇 차례의 남북 전쟁, 호이 안(Hoi An)의 발전, 중국인의 이주, 남진 등 역사의 관심은 주로 밝고 활기찬 남쪽으로 돌려지고 북쪽은 '찐 씨 치하'로 간단히 처리되다가 18세기 중반부터 망할 준비를 해가는 듯 각종 농민반란이 발생하고 결국 남쪽에서 일어난 떠이 썬에 의해 점령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찐 씨 치하의 북부 지역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이 책에 의해서 오롯이 살아나 역사가들의 눈앞에 섰다. 왕, 관리, 환관, 서양 상인, 베트남 선원, 브로커, 농민, 장인, 베트남 아내, 창녀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인물 및 사건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선원들과 베트남 깡패들 사이의 패싸움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베트남의 고급 관리들이 탕롱과 바타비아 사이를 일상적으로 오가는 모습이 발견된다. 바타비아의 네덜란드 총독이 북베트남 왕의 양자였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다. 물론 이는 베트남에서 보낸 서한에서의 일방적 통고에 불과하지만 17세기 탕롱과 바타비아 또는 베트남인과 네덜란드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소중한 단초가 되는 발견이다.

책이 다루고 있는 시간적 범위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북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1637년부터 거래가 종결되는 1700년까지이다. 17세기 중반은 네덜란드가 1600년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후 바타비아를 근거지로 하여 동남아시아, 타이완,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활발하게 도자기, 견직물, 은 등을 교역했던 때였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동인도회사 교역선들은

특히 통킹의 견직물과 일본의 은을 교환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호앙 아인 뚜언은 북베트남, 동인도회사, 일본 등 3개의 무역주체를 고찰하면서 17세기 중반 이후 교역의 시대를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자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세계의 17세기 교류란 곧 동시대 동아시아교역망의 형상화이며, 안소니 리드의 ‘동남아시아적’ 지역 범주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저자는 북베트남이란 역사공간과 17세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 구축의 외연을 ‘동남아시아 교역시대’ 보다 더욱 확대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호앙 아인 뚜언은 사료 개척 작업에서 개가를 올렸다고 할 만하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고문서’ 역사가들에게는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자료인가? 그러나 또 그 얼마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자료인가? 특히나 베트남사 연구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하노이의 이 신세대 젊은 학자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으로 가서 고어를 익힌 후, 문서 보관소를 뒤져 17세기 통킹의, 아울러 17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교역망을 생생하게 그려낸 것이다.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호앙 아인 뚜언은 원래 고고학연구자였다. 특히 해양고고학전공이었던 그는 홍강변에서 17세기에 번성했다던 상업도시 포 히엔(Pho Hien)의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가(2000)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쓴 경험을 했고, 이후 흙에서가 아니라 종이에서의 역사 발굴을 위해서 라이덴 대학으로 건너가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네덜란드 고어를 배워 문서보관소의 동인도회사 자료들을 뒤진 것이다. 흙 파기에서 종이더미 파기로 이동한 그의 이력이 흥미롭고 아울러 ‘발견’을 위해서는 손에 익숙한 삽을 버리고 어려운 고문자를 배우기를 감내해 내는 그의 열정이 귀하게 느껴진다.

한국학자로서 나에게 이 책이 매우 값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17세기 무겁게 가라앉고 닫혀 있던 한국 역사를 이 책이 조심스럽게 두드

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베트남학자가 집요하게 일본과의 교역을 언급하면 할수록, 글을 읽는 나로서는 바로 그 일본과 지척에 있었고, 제한된 방식이나 일본과는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조선 또는 조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교역의 시대’에 참여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다. 통킹의 견직물이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그 대금은 은 또는 동전이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파낸 은으로만 교역했을 것인가? 16세기부터 통용되기 시작한 조선의 동전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베트남으로 가서 녹여진 후 대포를 주조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 베트남의 계피, 물소뿔, 빈랑, 그리고 견직물은 동인도회사 교역선에 실려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또 부산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등등. 더군다나 이 세기는 전주의 조완벽(趙完璧)이라는 선비가 일본을 거쳐 통킹을 두 차례나 여행했고 (1604-1606) 벨데브레와 (1627) 하멜 일행이 (1653)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으며, 제주도민 28명이 호이 안으로까지 떠밀려가 (1687) 일 년 여를 살다가 돌아온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이지 않은가? 17세기로의 전환기로부터 임진, 정묘, 병자년 숨가쁘게 일본, 중국, 만주 세계와 접촉했던 조선의 역사는 ‘동아시아 교역의 시대’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게 하는 이 책은 그래서 국내외 한국사 연구자에게 17세기 조선을 국외의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은근히 권유한다.

책의 구성은 네 개의 부(部 part)로 나뉘고 각 부는 대략 2-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경제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제 1부는 언뜻 보면 요즘 유행하는 개설적 전사(前史) 소개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호앙 아인 뚜언은 통상적 역사 소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의 해양교역 전통이라든가 교역 물자들을 정리하면서 베트남 대외 교역의 적극성이 17세기 서양의 도래가 아니라 16세기 초 막(Mac) 씨의 등장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주

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대외 교역의 적극적 추진을 내재적 발전선상에서 파악하려 한 것이라든지 베트남에서 교역의 시대를 한 세기 정도 앞당겨 보려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제 2부 ‘정치 관계’와 제 3부 ‘교역 관계’가 이 책의 본 내용에 해당한다. 제 2부에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베트남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어진지 1년 만에 회사의 교역선은 남부베트남(Nguyen 씨 정권)과 교역하기 시작했고, 남북 간 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관계의 중심축은 북베트남(Trinh 씨 정권)으로 옮겨갔다. 이 과정 속에서 보이는 양 측의 관계를 교역, 외교, 군사 갈등/동맹 등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망하고 있다. 제 4부 ‘교역 관계’에서는 수입/수출 품목, 교역 방법, 가격, 교역망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마지막 4부 ‘네덜란드-베트남 상호 관계’는 네덜란드인 또는 상관(商館)의 출현과 관련된 통킹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다루고 있다. ‘베트남 어 배우기,’ ‘외국 상인과 베트남 여성,’ ‘통킹의 화폐경제’ ‘노동력의 문제’ ‘물가’ 등의 주제에 대한 필자의 소묘를 통해 살아 있는 17세기의 통킹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책 후미에 둔 첨부물(appendices)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고마운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통킹에서의 외국/동인도 회사 선박의 물자 선적 내역,’ ‘동인도 회사의 통킹산 견직물의 일본 수출 내역,’ ‘통킹 도자기 수출 현황,’ ‘통킹으로의 도자기 수입 내역,’ ‘통킹 지배자들을 위한 일본도자기 구매 일람’ 등이 정리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다. 특히 마지막 두 자료에서는 17세기 통킹으로 건너온 일본 도자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도자기들이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 또는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면 감회가 남다르다.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손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사람을 대신해 해상을 떠돌며

동아시아교역에 참여하고 있었는가 하여 애처롭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 책을 읽을 때 역사학자로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패러다임의 소극성이다. 저자는 17세기 중반 이후 통킹의 대외 교역을 ‘쇠퇴 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쇠퇴의 이유로 일본의 쇄국, 통킹인의 소극성(심지어는 대외교역에 대한 베트남인의 전통적 소극성까지 주장된다), 통킹 정권의 자의적 행동 등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역사에서 ‘발전’이란 ‘진보’나 ‘발전’ 또는 적어도 ‘변화’라는 역사의 보편적 개념에 공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멸망이나 쇠퇴의 원인 분석 물론 역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17세기 후반 통킹의 역사를 가까스로 조망하는 마당에 왜 하필 그 방향성을 ‘쇠퇴(decline)’라는 틀에서 잡았는지 아쉽다는 얘기이다. 17세기 통킹의 반세기를 살려내긴 살려냈으며 그 반세기는 쇠퇴의 반세기요, 그 반세기 이후의 통킹은 다시 어둠의 세기로 버려두고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랜 식민지 시대 및 전쟁과 혁명기에 왜곡된 역사의 주름을 다시 펴는 시기인 이때에 왜 또 ‘쇠퇴의 역사’인지....

둘째로, 자료의 문제이다. 호앙 아인 뚜언의 가장 큰 공헌이 자료 발굴이지만 가장 큰 약점도 자료에 있다. 그는 책의 핵심 부분을 거의 전적으로 동인도회사 문서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자료라고 해서 다 역사 자료가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는 듯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역사 서술의 빛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는 사인(士人)이 쓴 관찬 사료조차도 인용에 조심함이 필요한 법이다. 동인도회사의 자료는 대부분 상인들에 의해서 쓰인 것이다. 거짓 말 내지 과장을 인생살이에서 당연한 것 또는 피치 못할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상인들의 기록을 날 것 그대로 역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책에서 통킹에서의 상관 유지 실패 원인을 얘기할

때 왕 및 관리들의 어처구니없는 뇌물 및 보상 요구, 상식을 깨는 자의적인 행위가 묘사된 동인도회사 자료만을 반복 이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이 책의 공헌을 손상하지는 않는다. 이 책은 우선 읽기가 매우 쉽다. 쉽게 읽힌다는 것은 그만큼 잘 썼다는 얘기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새로운 자료들은 짜임새 있게 분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는 가치는 동아시아 세계 내지는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역사적 사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교역의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가 밀접하게 연계된 하나의 세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자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베트남의 독특한 위상과 역할이 호앙 안인 뚜언의 이 책을 통해 오롯이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